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와 4년 동행...빛으로 나오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자조모임 사진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30대 이하 중심...대인관계·가정문제로 은둔

전국 첫 지원센터, 맞춤 회복으로 '자신만의 속도' 성장

#1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7씨는 학교를 그만뒀다. 검정고시를 도와주는 곳이 있어 즐겁게 공부했지만 대학에는 가지 못했다. 우울증으로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그러다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소개받았다. 상담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동료들과 놀이동산을 가며 잊고 지냈던 '사회적 연결'의 즐거움을 되찾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빛으로 걸어나가길 바란다.

#2 L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은둔이 시작됐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청년들을 도와주는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기는 힘들었다. '나는 안 되는 건가?'라는 절망 속에 다시 방구석으로 돌아갔다. 어쩌다 찾은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서도 적응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성장통이라 여긴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은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성장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에서 반드시 은둔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한다.

#3 L씨는 은둔생활 8년차다. 집안 문제 스트레스로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았고, 이후 대학마저 가지 못하게 되자 희망이 사라졌다. 병원을 다니다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추천받았다.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지금은 뭐라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생활습관을 갖게 됐다. 여전히 감정조절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상담과 활동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중이다. 그의 가슴엔 '드림'이라는 꿈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지역 '은둔이'들의 작은 빛이 되고 있다. 사회적 '연결'의 경험은 이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운영

하는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는 2022년 설립됐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3년이 지난 때였다.

센터는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생활습관 및 대인관계 개선 프로그램, 일경험·취업 연계, 동아리(자조모임) 활동 등 은둔 당사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 프로그램인 '무등산 속 마음산책'은 일명 '명랑한 은둔자 모임'으로 불린다. 외출이 두렵거나 무기력증에 빠진 당사자들이 편백숲, 미술관, 사찰 등을 함께 거닐며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준다.

센터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136명이 센터를 찾았다. 이용자 통계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20대가 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8명, 10대 22명, 40대 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유빈 기자

현대차, 바다숲 지키는 '이름 없는 숲' 캠페인 전개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바다숲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새로운 사회공헌 캠페인 '이름 없는 숲 (Forests Without Names)'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는 5월 10일(일)인 '바다식목일1)'에 앞서 공개된 이번 캠페인

은 그간 육지숲과 달리 주목받지 못하던 바다숲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지도 서비스에 반영해 해양생태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바다숲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가 울창하게 번성해 형성된 생태

공간으로, 탄소 흡수 잠재력은 물론 수산자원 증진, 해양 생물 서식처 제공, 오염물질 정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중요한 해양생태계다.

실제로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바다숲 사업 성과' 현황에 따르면 바다숲 1㎢ 당 연간 약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0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3차 총회

에서 해조류가 해양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다숲의 국제적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대차와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울산 해역에 조성한 바다숲 두 곳 가운데 동구 주전동 지역에 위치한 한 곳에 '울림(Ullim) 바다숲'이라는 지명을 부여하고, 해당 명칭을 국내 지도 플랫폼인 '카카오맵'에

등재했다. 이는 바다숲이 주요 지도 서비스에 이름과 위치로 표기된 첫 사례로, '울림'이라는 이름은 '울산의 새로운 숲(蔚林)'이라는 의미와 함께 환경 보전을 향해 바다숲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울림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또한 울릉군의 참여로, 현대차가 조성한 '울림 바다숲' 외에도 울릉군의 '통구미(Tonggumi) 천연 바다숲' 역시 카카오맵에 등재되며 바다숲 인지도 확대에 힘을 보탤

다. 현대차의 캠페인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확장되고 있다.

현대차는 바다숲 보전 선도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바다숲에 현지 해양 NGO 및 주민 단체와 협업해 'Auken Aiken2)(아우켄 아이켄)'이라는 지명을 부여했으며, 호주에서도 현지 해양 전문가 및 지역 공동체와 바다숲 후보 명칭을 선정한 뒤 글로벌 투표를 통해 최종 이름을 'Yanggaa3)(양가)'로 선정했다. /이유빈 기자

토지권원 95.2% 달성! 조합원 모집 신고필!

조합사업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합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